



걱정의 대 하가 세 차례 끊이 천 9월의 경축광장, 철만군민의 실상과 심장들이 하나가 되어 절세의 위인을 우러러 목청껏 마치었던 만세의 우렁한 함성을 그대로 우리 조국의 원승불문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띠사에 다시금 새기었다.

일설단결!

명도자의 사상과 뜻을 반드시는 걸에서 철만군민이 한모습, 한본인가 되어 보우당당히 나아가는 이 격동적인 현실에서 세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헉령의 전두에 높이 모시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임신탄결은 정권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현지화된 본이다. 수령, 당, 대중

이 위대한 사상과 뜻을 사랑파장

의 무진강한 위력을 보고 있으며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조선의 창창한 미래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모의 일심 단결을 뼈대로 강화하고 철저히 운동보위하여야 합니다.』

단결은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 마련되었다고 하여 세월의 흐름속에 끝까지 계승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역사의 그 어느 시기에나 그려하였듯이 나라와 민족의 광고한 단결을 이루하려는 것은 정치가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리성이었다.

하지만 단결이라는 고상한 레임을 자기 평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다침없이 신뢰심에 넘쳐 가장 순절하고 공고한 단결로 굳건히 다져나가는 인민, 그러한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 인민, 우리 조국밖에 없다.

남들이 가질수도 흔들릴 수도 없는 수령, 당, 대중이 흔연일제를 이룬 우리 조국에 일심 단결, 세대와 세대, 남대와

# 인민은영원한일편단심

년대를 이으며 축기자체 이어지는 우리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경애하는 원수님, 그야께서는 실사 숨고한 아민위선의 레임을 철학한 현실로 꽂고 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헉령의 전두에 높이 있고 단 1초의 좋은 절, 광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광설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당하게 밀고 토설하여 세상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침주에 말씀하시였다.

그 음성은 전진 철만자식의 운명도 미래도 꿈까지 책임지고 꽂고 위를 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어린 목소리였다. 그 열화의 정이 온 나라가정에 흘러들 때 인민의 가슴마다에 얼마나 뜨거운 걱정의 대하가 사물쳤던가.

철세위인의 거장 경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앞에서 철만군민은 이 땅우에 인민의 나라를 일찌세워 주시고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뚱뚱하는 당이다. 파선시피해 복구전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파를 가서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운동이다.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스스로 운동으로 올바른 철마니의 품이 이 땅의 철만아들들의 삶과 행복을 떠나는 바빠주고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

황금해의 력사우에 떠오른 이제로 운선경에 대한 일화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걸고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철마니의 높은 믿음으로 끌어온 것이다.

나라의 최고종대사인 국방사업과 판면처럼 우리 인민을 달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것은 우수원의 물고기를 머칠사이에 잡

인민군대가 파선시피해 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 기념일전으로 한전히 꿈별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날은 친가가 쓰러져내리는 날이

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또다시 찾으시였던

죽은 날도 미다하지 않고서 구내에 차진치는 물고기비단내, 사회주의

바다항구를 두고 온 세상이 밟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과 정을 담으시여

말씀하셨었다.

모든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어로

공들이 한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잡아내는 일련상황에 이바지하는 마음,

자기들이 지켜낸 꽃이 바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일선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암고 뚜렷한다면 그 어더서 물고기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당정책을 실점으로 접수하고 한그물 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어 당정책을 점사관찰하고 있는 어로조사들이 있어 여기에 『이제어경』이라는 시대의 그 하나의 새로운 선정이 펼쳐질 수 있었다고 …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북무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뚱뚱하는 당이다. 파선시피해 복구전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파를 가서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운동이다.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스스로 운동으로 올바른 철마니의 품이 이 땅의 철만아들들의 삶과 행복을 떠나는 바빠주고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

나라의 원수님의 헌신의 강행군길에서 끌어온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철마니의 높은 믿음을 지키는 스스로 운동으로 올바른 철마니의 품이 이 땅의 철만아들들의 삶과 행복을 떠나는 바빠주고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

나라의 원수님의 헌신의 강행군길에서 끌어온 것이다.

# 시, 군당위원회들은 당정책집행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견인기가 되자

## 성과의 비결은 이 신작 치과 높은 실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련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군당위원회들이 우리 당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대답을 주고 있다.

### 선도자, 기마수가 될 때

연봉호에 쏘아끼를 대대적으론 번식시키기 위한 연봉호장과 어업사업소를 잘 건설함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말씀을 철철牢았을 때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당 위원회는 무부상을 책임자로 하면서 강력한 건설지휘력을 펼쳐하고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선발된 연봉호로 풍미대로 조직하였다. 기초공사는 시작부터 어려웠다. 땅이 얼마나 터무니롭게 벌어졌는지 몇십여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중기계의 날까지 무더기나가게 되자 일부 사람들은 경사대를 뜯고 세워 어려운 구간을 타고났다. 그들의 뒤를 시안의 근로자들이 따라나섰다. 풍사장은 옷과 밥이 따로 없었다. 이렇게 일군들은 선도자, 기마수가 되어 대중을 이끌어 기초공사를 일탕하게 끌어내는 기적을 칭송하였다.

수십리 멀어진 곳에서 물체를 되는 또 하나의 좋은 기쁨이다.

다음 시, 군人们的 마찬가지로 기마수가 되어 대중을 이끌어 기초공사를 일탕하게 끌어내는 기적을 칭송하였다.

개천시 풍파하는 대형화물

차운전차들을 발동하여 현대를

부여 물체를 충족시키고 일군들은 협의회에서 김일성·시당 위원장을 주전을 세웠다.

『명예한국은 풍미를 단 1분도

중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문, 자기 원위 사업을 당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린

그때를 돌아보며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 개천시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공사장에 산대미같이 쌓아지르는 물체를 보며 우리는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창작도 일군의 머리에서 나와야 하며 대중의 심장에 물을 다는 창신하고 실현되는 정치사업방법도 일군들이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떠서 미리 체험하였습니다.』

지난 8월 새로 진설된 연봉호 랑양어업사업소를 현지지도하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연봉호상류어업사업소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신임의 기동력을 얻어갈아서 새워주었다.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이를 통해 대중에게 잘 친절하였다고 칭찬하면서 쓰가리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연봉호에서

창이 확고하면 방도가 피오르기 마련입니다.』

당책임일군의 절절한 호소는 협회 회장 가족들의 가슴마다에 당정책은 개선사업을 하자는 신임의 기동력을 얻어갈아서 새워주었다.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이를 통해 대중에게 잘 친절하였다고 칭찬하면서 쓰가리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연봉호에서

창이 확고하면 방도가 피오르기 마련입니다.』

당책임일군의 절절한 호소는 협회 회장 가족들의 가슴마다에 당정책은 개선사업을 하자는 신임의 기동력을 얻어갈아서 새워주었다.

이런 때 시당위원회는 난관을 치우기 위한 방도를 찾았을 일군들이 선도자, 기마수가 되어 대

중을 이끌어나가는 데에서 찾았다.

기초공사장에서 일련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김일성·시당 위원장을 주전을 세웠다.

『명예한국은 풍미를 단 1분도

중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문, 자기 원위 사업을 당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린

그때를 돌아보며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해전부터 통진협동농장

제 1 사업단에 나가 농사지도를

하면서 전면적에 강생이 여리개체 모기기방법을 받아들여 이방미이 암말로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앞선 능률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또한 대중을 이끌어 남한강호안용사도 분위기 있게 내밀어 단 3일동안에 끝으로써 남한강을 보비강, 천원의 강으로 전변될 수 있을 확

고한 전망을 알아놓았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의의 각오를 가지고 당정책관련의 선도자, 기마수가 되어 대중을 이끌어나가 때 당의 의도를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관철해갈 결의의 각오도 생기고 보호도 나오기 마련인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실정만이 아니라

군당일군들이 당정책관련의 선도자, 기마수가 되어 대중을

제 5 사업단에 1 000명 정도

의 시험보전을 만든 당시 책임일군들의 실력이 높아야 한다.

들은 결의를 직접 해보면서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시에서 높고

언제 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확증하는데 기초하여 올해

영농실험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결과는 좋았다. 농작물의 푸른

기운이 차운 일군의 고온과 꽃물이 푸른



# 숭고한 인민사랑 넘쳐흐르는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

## 류경치 고향 병원을 찾아서

류경치파병원!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대적인 치과병원 설립을 적극 말기하고 설계로부터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께서 주체 102(2013)년 8월 또다시 전설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사방팔방이 봄소 이를도 지어 주신 명현이다.

그때로부터 다섯 톱기의 봄을 새긴 이 병원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정이 흘러넘치었고 인민의 행복님께 웃음소리를 풀 얼마나 크게 흘려나왔는가를 그려보며 멀찌倦 우린는 이 꽃을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끄럼 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뜻을 소리로 둘째당세소리가 놀이를

의료봉사활동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의 기쁨 넘친 이야기를 피새기며 우리는 화강석으로

같이 더듬은 한간들이 세워진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섰다.

2층에는 기능전선과에서 몇 명의 환자들이 치과다목적

센트럴촬영기로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었다.

우리의 미리속에서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혁신에 사

는 남다른 긍지가 어려웠다.

이곳으로 가는 도중에 1부원장은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접수, 진찰, 치료하고 복무도 보내는 모든 운영부서를 꼬꼼히 통

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전자

병원에서 보내는 사전

되는 일정과 병원을 세우고

있던 치과치료를 잘해줄데

대해서도 당부하시었던 사랑

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영광에서 열린 병원의 조성과

이후에는 그들의 일정에

맞춰 일정을 짜고 있다.

당의 운정사업부에 헌신해온 수십 대

의 큐레이터들이 치료사업에 널리

미용되고 퍼포대학의 교원, 연구

자들은 치과를 함께 실현하였다.

한 의료일군의 건강증진에

맞춰 일정에 맞춰 일정을 짜고

있던 치과치료를 잘해줄데

대해서도 당부하시었던 사랑

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곳에서 우리는 원수님의 사랑에

맞춰 일정을 짜고 있다.

한국의 치과는 인민을 위해

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자주자이 뜨겁

게 어려와 물을 젓어들었다.

한국의 국운비로 하여 신발

이며 옷자락이 젓어드는 것은 아

랑듯하지 않으므로 건설에서 계

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로

쳐주시면서 못 잊을 그날로부터

반복 두달 날지한 사이에 또다

시 찾으으면서 건설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면서 우리 원수님,

치료실들은 물론 복도와 홀들

도 좋은 마감재를 순례없이

꾸며주어야 한다고 이르시고 어

린이 놀이장을 보시고는 어린이

들의 동침에 맞게 미루리를 잘

하고 있다.

이것은 진영이적이이며 옛

문화기념관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다.

- 과학기술전당에서 -

분사기자 풍금 챕

조국의 부감번영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다.

- 과학기술전당에서 -

분사기자 풍금 챕

우리 인민의 전통부식물 - 건뎅이젓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건뎅이젓은 밥맛을 떨구고 깔끔식설문이 많은 좋은 절갈쯤입니다.》

세 면이나 바다로 둘러싸여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것갈쯤화가 특별히 발달하였다.

오랜 역사부터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에 널리 흘러온 부식물의 하나인 것갈쯤은 짭짤하면서도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어 식욕을 끌어들이며 비빔밥, 단백질, 단백질, 카시음을 비롯한 영양성분이 풍부한 맛으로 전통에 이어져온 것이다.

그중에서도 건뎅이젓은 예로부터 청도군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즐겨먹어온 것갈쯤을 먹고 있다.

건뎅이젓은 새끼새우모양의 갑각류로서 우리 나라의 서해와 동해에 퍼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씨름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민족경기로서 인내력과 투지, 장수함을 기우는 좋은 체육종목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조들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두사람이 다리에 걸상이나 히리에 뱀 뱀을 서로

잡고 넘어뜨리기를 계루는 우리 나라 민족체육 종목의 하나이다.

씨름이란 말은 《계루다》, 《다루다》는 뜻을 나타내는 옛 날말인 《힐후다》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즉 《힐후다》가 명사화된 《힐후》이 오랜 세월을 내려온 파경에 《실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0돐경축 국기마술전람회에서 새로 출품된 작품들을

가운데 더운 날 속에 한

수행님을 높이 모신 민족의 환희, 수령님의 두리에 글씨 풍랑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당시 원수님께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제기

에 조선인민은 대단히 비싼 치

과표를 높이 모시고 있다.

이 작품은 원수님에 대한 존

경을 높이 모신 원수님의 세심한 사랑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

았던 것이다.

이것은 진영이적이며 옛

문화기념관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다.

- 과학기술전당에서 -

분사기자 풍금 챕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조국의 부감번영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다.

- 과학기술전당에서 -

분사기자 풍금 챕

우리 인민의 전통부식물 - 건뎅이젓

전통건강증진기구 조선체육기

기구는 전통건강증진기구

기구로 전통건강증진기구

#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획기적전환점

력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환영하여

중국 외교부장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

중국 외교부장 왕의가 20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정부의 입장문 밝혔다.

그는 19일 조선반도에서 중  
대통령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온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문재인

아니나 중국을 포함한 각국 인  
민들의 널원이기도 하다고 말하  
였다.

중국은 이를 열렬히 축하하며  
확고히 지지한다고 그는 강조하  
었다.

## 6. 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기자회견 진행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  
스』에 의하면 20일 6. 15공동  
선언실천 남측위원회(6. 15남  
측위원회) 대전본부가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환영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는 경이적인 평양공동  
선언이 발표된 데 대해 언급하고  
남북은 조선반도 평화통일의 주

제라고 강조하였다.

통일을 가로막던 장막을 풀어  
내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  
대를 여는 주역이 된 궁금에 가  
슴이 실례인다고 하면서 단체는

평양을 광장내고 평화를 실현하  
자고 호소하였다.

기자회견이 항복되었다고 하면서 모  
스카라는 평양에서 진행된 수뇌  
회晤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하  
였다.

회견문은 평화의 봄으로 이끌  
여닌 4. 27판문점선언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발표로 통일의 주

원칙을 계획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  
떠난 난관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  
로 극복해나가려는 자심을 내  
외에 전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9월 평  
양 공동선언』을 열렬히 환영한  
데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관련된 회견문은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회견문은

가운데 민족자주,